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중단적 매개효과*

조윤영** · 정현희***

I 알기 쉬운 개요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확립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를 보내는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시기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증가하였고,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문화적응을 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4년 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국가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매개하여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 본 논문은 조윤영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함.

** 계명대학교 초빙조교수, 제1저자, salom602@daum.net

***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hhchung@kmu.ac.kr

투 고 일 / 2024. 9. 9.

심 사 일 / 2024. 11. 4.

심사완료일 / 2024. 11. 13.

I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 패널 중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응답한 다문화 초기 청소년 1,362명이었다. 자료는 SPSS 22.0와 Mplus 8.0을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각 변인은 변화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가 있었다. 초기 수준은 이후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초4 시기에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높아지고,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동안 국가정체성의 변화는 빠르게 증가한다. 초4 시기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천천히 증가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국가정체성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셋째, 초4 시기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4 시기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단적 관점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확립과 발달을 위해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중요성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개입과정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다문화 상담 전략과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다문화 초기 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잠재성장모형

I. 서 론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 외국인 거주자 유입 등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으로,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2).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의 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은혜, 최려나, 2024).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2013년 5만 5,780명에서 2023년 기준 18만명에 이르러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다(교육부, 2023).

다문화 청소년이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이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22). 이 중 9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변화와 함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에게 있어 정체성 확립이란 개인적 관점에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자아정체성뿐만 아니라 집단적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정체성 확립까지 포함한다(Matsunaga, Hecht, Elek & Ndiaye, 2010). 이러한 집단 정체성 중의 하나인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인지·행동·정서적 측면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 긍정적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Phinney, Berry, Vedder & Liebkind, 2022). 국가정체성을 확립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은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기보다는 한국 문화에 긍정적인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Phinney, 1992). 또한 국가정체성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향상하고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am & Berry, 2010). 그러므로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에게 국가정체성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체성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다른 문화에 대해 지각하는 태도와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가정체성은 개인 성격적인 특성, 가정 및 사회문화와의 상호작용, 타인과의 관계 등을 통해 유동적으로 변화한다(Sue & Sue, 1999). 다문화 청소년은 국가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할 때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희훈, 이유정, 2019).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환경에 따라 국가정체성의 형성과 발달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의 발달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Berry(2005)는 문화적응이론에서 두 문화의 접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결과를 설명하며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화적응 유형 중 두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유형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관련이 있다(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국가정체성 확립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자들은 두 문화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와 두 문화에 대해 수용하고 존중하는 이중문화수용태도(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에 주목해 왔다(이소연, 2018; 이수경, 2020).

다문화 초기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다름을 경험하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송채수, 2018).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이 심하게 나타나며 이는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국가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rrera & Wei, 2014). 박지나(2023)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국가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은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Yampolsky와 Amiot(2016)는 매개분석 결과, 더 높은 차별은 더 큰 스트레스를 통해 구획화를 예측하는 반면 더 낮은 차별은 더 낮은 스트레스를 통해 더 큰 정체성 통합을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국가정체성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국가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두 문화에 대해 위계를 두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이소연, 2018).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은 개인은 두 문화를 상호배타적으로 여기지 않고 호의적 태도와 신념을 바탕으로 두 문화의 가치, 규범, 행동양식을 내재화한다(Lee, Han & Thompson, 2021).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국가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개인이 공동체에 속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Nguyen & Benet-Martínez, 2013). 유창민(2020)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우려가 적으며, 통합된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수미, 김현옥(2022)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한다고 밝혔고, 윤미리, 장유나, 홍세희(2020)의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낮은 부적영향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김재남(2022)은 다문화 청소년

년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한솔, 김규찬(2023)은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으며 높은 이중문화수용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다문화 청소년이 낮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김재남(2022)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박지나(2023)는 다문화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Tian, McClain, Moore와 Lloyd(2019)의 연구에서 아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한 민족정체성은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보고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에 대한 필요성과 관계를 횡단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변인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한 몇몇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각 변인에 대한 종단적 변화궤적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홍민주, 이주연(2023)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발달궤적을 탐색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 후 감소하는 형태를 밝히고, 이러한 발달궤적은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arataş, Crocetti, Schwartz와 Rubini(2023)의 연구는 이민가족 출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족과 국가정체성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예측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수경(2020)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궤적에 따른 계층을 분류하고 계층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종단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은 발달단계나 경험에 따라 변화되는 유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종단적 관점에서 이 변인들의 변화와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간의 관계는 발달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구조적인 관계로 변화하는지를 파악한 연구가 요구된다.

문화적응이론에서는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문화적응에 이르는지 시간의 간격을 두고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Berry(2005)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정서적 요인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행동적 요인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인지 및 심리적 요인으로 국가정체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인지 및 심리적 요인은

정서·행동적 변화를 통해 형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행동적 변화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Berry, 2011).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 변인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rry의 문화적응과정에서 설명하는 시간적 개념을 적용하여 종속변인은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가장 나중에 형성되는 국가정체성으로, 독립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로, 매개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인인 이중문화수용태도로 정하고자 한다.

발달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초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며 아동기적 가치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다(Marcia, 2002). 초기 청소년기는 이때 경험하고 인식하는 여러 사고와 가치 형성이 중기나 후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박정서, 2012). 따라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 및 변화될 수 있으며, 이후 시기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인 간의 종단적 관점의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놓여있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과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때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과 변화 간의 관련성을 검증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 인과적인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한국 사회 내 다문화 초기 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 발달과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국가정체성 함양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1차)부터 2023(13차)년까지 조사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1기(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모집단 분포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가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국제결혼가정자녀가 주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1기 패널 초4 시기(1차)부터 중1 시기(4차)까지 결측이 있는 모든 케이스를 제거하는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연구대상자는 남학생 667명(49%), 여학생 695명(51%)으로 전체 1,362명이었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된 데이터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신뢰성(Cronbach's 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Mplu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으로 종단적 변화와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였고,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편향 조정 부트스트랩(bias-corrected bootstrap)을 이용하였다. 편향조정 부트스트랩은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존재하는 잠재적 편향을 조정하는 방법이다(Efron & Tibshirani, 1986).

3. 측정도구

1)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문화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으로 Hovey와 King(1996)이 개발하고 노충래(2000)가 변안 및 수정한 10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다른 사람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항목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정도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1차년도 .76, 2차년도 .77, 3차년도 .78, 4차년도 .75로 나타났다.

2)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척도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지닌 한국문화와 외국 국적 부모의 나라 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것이며 노충래, 홍진주(2006)의 연구에서 활용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등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관심이 많고 수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1차년도 .76, 2차년도 .79, 3차년도 .77, 4차년도 .78로 나타났다.

3) 국가정체성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척도는 성한기(2001)의 한국판 사회정체성 척도 중 집단에 대한 개입문항을 한국에 대한 다문화 청소년의 감정개입을 알아보는 것으로 수정한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등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한국에 대한 유대감 및 소속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1차년도 .83, 2차년도 .84, 3차년도 .82, 4차년도 .83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절댓값은 Kline(2011)이 제시한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문화 적응 스트 레스	① 1											
	② .344**	1										
	③ .329**	.357**	1									
	④ .256**	.252**	.334**	1								
이중 문화 수용 태도	⑤ -.159**	-.135**	-.100**	-.089**	1							
	⑥ -.102**	-.229**	-.134**	-.108**	.384**	1						
	⑦ -.119**	-.147**	-.182**	-.116**	.265**	.380**	1					
	⑧ -.078**	-.137**	-.117**	-.206**	.240**	.303**	.369**	1				
국가 정체 성	⑨ -.071**	-.076**	-.040	-.078**	.464**	.243**	.164**	.158**	1			
	⑩ -.041	-.069**	-.065*	-.071**	.213**	.426**	.173**	.163**	.324**	1		
	⑪ -.068**	-.075**	-.090**	-.103**	.112**	.160**	.375**	.188**	.242**	.341**	1	
	⑫ -.066*	-.070*	-.080**	-.167**	.157**	.181**	.224**	.409**	.250**	.317**	.394**	1
평균	1.455	1.442	1.430	1.381	2.897	2.900	2.949	2.922	2.639	2.712	2.788	2.779
표준 편차	.380	.365	.371	.316	.404	.400	.386	.385	.668	.642	.637	.653
왜도	1.378	1.400	1.409	1.365	-.313	.083	.213	.086	-.334	-.353	-.328	-.449
첨도	2.394	2.187	1.984	1.890	1.642	.744	.503	.812	-.025	.286	.305	.494

주. ①초4 문화적응스트레스 ②초5 문화적응스트레스 ③초6 문화적응스트레스 ④중1 문화적응스트레스 ⑤초4 이중문화수용태도 ⑥초5 이중문화수용태도 ⑦초6 이중문화수용태도 ⑧중1 이중문화수용태도 ⑨초4 국가정체성 ⑩초5 국가정체성 ⑪초6 국가정체성 ⑫중1 국가정체성.

* $p < .05$. ** $p < .01$.

2. 잠재성장모형 검증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변화양상을 추정하기 위해 적절한 변화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무성장모형, 선형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무성장모형, 선형성장모형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χ^2 차이검정 결과는 $\Delta\chi^2=67.951(\Delta df=3)$ 로 자유도 3에 대한 임계값인 7.81보다 크므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두 모형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더 복잡한 모형인 선형성장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Widaman, Ferrer

& Conger, 2010). 무성장모형에서 RMSEA는 .05 이상이고 CFI는 .90 이하, AIC, BIC는 선형성장모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형성장모형에서 CFI, TLI는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SRMR은 .05 이하이다. 따라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선형성장모형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무성장모형, 선형성장모형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χ^2 차이검정 결과는 $\Delta\chi^2=40.616(\Delta df=3)$ 으로 자유도 차이 3에 대한 임계값인 7.81보다 크므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무성장모형에서 RMSEA는 .05 이상이고 SRMR은 .08 이상이며 AIC, BIC도 선형성장모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형성장모형에서 CFI, TLI는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SRMR은 .05 이하이다. 따라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선형성장모형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표 2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SRMR	TLI	CFI	RMSEA	AIC	BIC
문화적응 스트레스	무성장	87.842***	8	.061	.910	.880	.084	3834.66	3866.23
	선형 성장	19.891**	5	.029	.973	.988	.046	3772.71	3820.07
이중문화 수용태도	무성장	71.403***	8	.084	.935	.913	.075	4836.46	4868.03
	선형 성장	30.787***	5	.047	.958	.965	.041	4801.84	4849.20
국가 정체성	무성장	93.484***	8	.077	.887	.873	.087	10568.31	10599.89
	선형 성장	16.827**	5	.027	.979	.982	.041	10497.65	10545.02

** $p < .01$. *** $p < .001$.

다문화 초기 청소년 국가정체성의 무성장모형, 선형성장모형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χ^2 차이검정 결과는 $\Delta\chi^2=76.657(\Delta df=3)$ 로 자유도 차이 3에 대한 임계값인 7.81보다 크므로 양방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무성장모형에서 RMSEA는 .05 이상이며 CFI, TLI는 .90 이하이고 AIC, BIC도 선형성장모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형성장모형에서 CFI, TLI는 .90 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SRMR은 .05 이하이다. 따라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하는 선형성장모형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다.

표 3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변화양상 추정치

	모형	평균		분산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문화적응 스트레스	선형성장	1.463***	-.024***	.060***	.004***	-.593***
이중문화 수용태도	선형성장	2.899***	.012**	.071***	.007***	-.504***
국가 정체성	선형성장	2.658***	.048***	.148***	.015***	-.314**

주. 평균과 분산은 비표준화계수임.

** $p < .01$. *** $p < .001$.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의 변화양상 추정치는 표 3과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의 평균과 변화율의 평균, 분산과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였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에서도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가 낮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측정시점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천천히 감소할 수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의 평균과 변화율의 평균, 분산과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4 시기 이중문화수용태도의 평균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였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에서도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가 낮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부적인 경우는 보이지 않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Kaplan, 2009). 최초 측정시점인 초4 시기에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할 수 있다. 초4 시기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낮을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해지고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 초기치의 평균과 변화율의 평균, 분산과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4 시기 국가정체성의 평균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였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에도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정체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 국가정체성이 낮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이후 4년 동안 국가정체성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검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χ^2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지만 RMSEA는 .05보다 작고 TLI와 CFI는 .90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수영, 2016; Hu & Bentler, 1999).

표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구분	χ^2	df	SRMR	CFI	TLI	RMSEA
연구모형	357.737***	54	.052	.920	.915	.048

*** $p < .001$.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본 연구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5, 그림 1과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는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할수록 같은 시기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까지 4년 동안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더 빠르게 감소할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t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406	.053	-.373	-7.666***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050	.032	-.148	-1.576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707	.188	-.537	-3.755***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 국가정체성 초기치	.157	.087	.097	1.811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 국가정체성 변화율	-.106	.052	-.203	-2.031*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 → 국가정체성 변화율	-.341	.314	-.167	-1.085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국가정체성 초기치	1.122	.089	.753	12.669***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국가정체성 변화율	-.064	.044	-.134	-1.445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국가정체성 변화율	.840	.228	.542	3.679***

* $p < .05$. *** $p < .001$.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는 국가정체성 변화율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초4 시기부터 중1 시기까지 국가정체성은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는 국가정체성 초기치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더 높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초4 시기 국가정체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은 국가정체성 변화율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까지 4년 동안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일수록 국가정체성은 더 빠르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5. 종단적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국가정체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편향조정 부트스트랩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편향조정 부트스트랩 방법(20,000회 반복시행)은 간접효과의 분포를 추정한 후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이며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Kirby & Gerlanc, 201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간접효과와 유의성 검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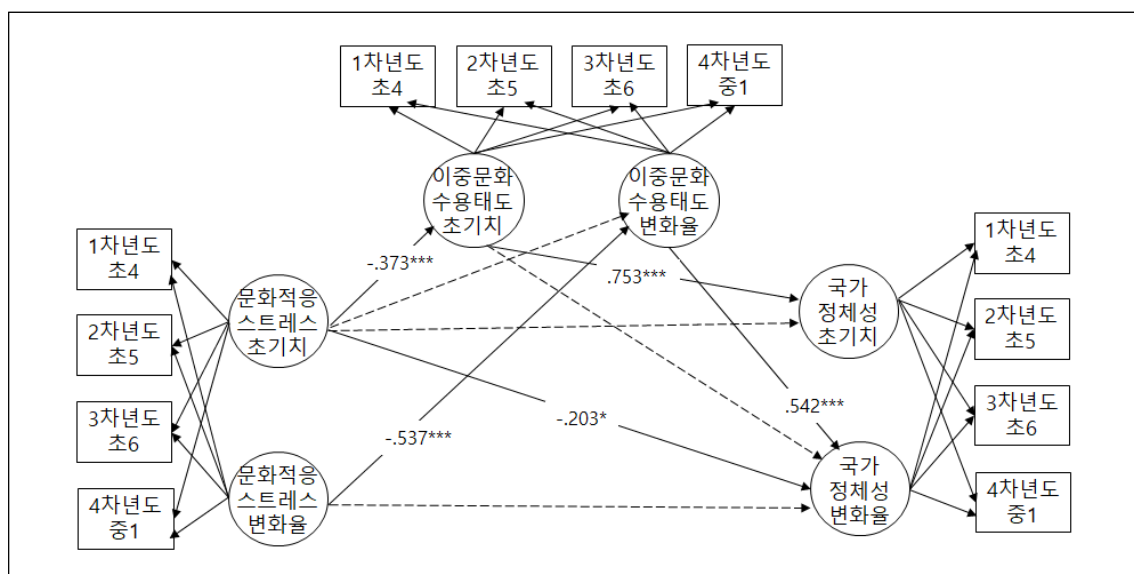


그림 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주. 모든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준화 계수임(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 $p < .05$. *** $p < .001$.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간접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CI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Lower	Upper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 →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 → 국가정체성 초기치	-.456	-.269	-.602	-.328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 →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 → 국가정체성 변화율	-.594	-.373	-1.004	-.260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와 국가정체성 초기치와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낮아지고, 초4 시기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낮을수록 국가정체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치가 국가정체성 초기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치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국가정체성 변화율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율의 매개효과는 유의하며, 이들과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수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면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감소가 국가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V. 논 의

각 변인에 대한 변화양상의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초4 시기부터 중1 시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4 시기에서 중2 시기까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밝힌 김원영, 정나은(2020)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 후 타인과의 소통기술, 사회적 기술과 규범 등을 습득하면서(Masgoret & Ward, 2006) 문화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좀 더 주류 문화에 대해 갈등 없이 수용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4 시기부터 중1 시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초4 시기에서 초6 시기까지 이중문화수용성이 증가한다고 본 이소연(2018)의 연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진학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한다고 밝힌 황희봉, 주은선(2023)의 연구 결과와도 비슷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 초기 청소년은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외국 국적 부모로 인해 비주류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실생활에서의 언어, 음식,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접촉 기회는 이중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

셋째,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은 초4 시기부터 중1 시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이 초5 시기에서 중2 시기까지 성장하면서 국가정체성이 증가한다고 밝힌 차한솔(202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즉, 국가정체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동태적 변인임을 나타내고,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해 소속감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부색, 언어, 이중문화 배경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안한다.

변인 간 종단적 관계에서 초기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 초기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김재남(2022), 박지나(202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 결과는 초4 시기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활문제, 언어문제 등으로 한국 사람처럼 보이기를 요구받거나, 외국인처럼 여겨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초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계없이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동안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율이 증가할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느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더라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시간 경과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초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국가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정체성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양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상을 포함한 정체성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Noh와 Avison(1996)의 연구와 비슷한 관점이다. 이러한 시기를 보내는 다문화 청소년이 초기의 문화적응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시기의 국가정체성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초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기 시점의 국가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4 시기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국가정체성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을수록 국가정체성이 높아진다는 유창민(2020)의 연구를 비슷하다. 이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다른 두 문화 사이를 적절하게 경험하면 각 문화의 가치와 신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는 자신이 속한 한국문화에 대해 높은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의 종단적 관점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국가정체성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이 높을수록 가장 이상적인 통합적응을 의미한다는 Berry(2005)의 문화적응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개념이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국가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함양되며 국가정체성을 강화시킨다는 황희봉, 주은선(2023)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국가정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국가정체성 발달에 있어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매개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초4 시기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초4 시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높아지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아지면 국가정체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간의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간접적 영향을 밝힌 박지나(2023)의 연구와 유사하다. 학교 내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사회적 위축을 강화시킬 때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매개함으로 위축감이 완화된다고 밝힌 김동욱, 장근호, 조민효(2023)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매개효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높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을 가짐으로 비주류 문화를 받아들이고 주류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통합 유형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기관과 상담현장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비다문화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이중문화수용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초4 시기에서 중1 시기까지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함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였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할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는 느리게 증가하고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증가할수록 국가정체성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 형성에 선행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매개효과에서 주목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국가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완전매개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변화가 매개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기 청소년기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이후 발달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국가정체성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Berry(2005)의 문화적응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정체성의 발달이 행동상의 변화보다 더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졌다는 것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성장해 감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는 중요한 함의를 나타낸다. 즉, 두 문화에 대해 수용적이고, 긍정적 태도 및 신념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하고 자신의 불리한 상황과 문제를 대처하게 하는 매개기제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노출된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상담전략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다르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감소하는 정도가 작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이 어떻게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발달 정도를 측정하고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이는 이중문화로 인하여 스트레스 환경에 있는 다문화

초기 청소년에게 이중문화수용태도에 기반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 상담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적 특성(출생지, 부모의 국적, 국내 거주 기간 등)에 따른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외국 출신 부모의 다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외국 출신 부모와 다문화 초기 청소년 간의 문화적응 방식 및 영향 관계에 대한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국가정체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 간 차이가 있고 변화양상에도 개인 간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하라 (2021).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 양육행동을 매개로 초기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현대사회와다문화**, 11(2), 127-162. doi:10.35281/cms.2021.05.11.2.127
- 강화, 배은경 (2018).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2, 131-164. doi:10.24300/jkscw.2018.06.62.131
- 교육부 (2023).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김동욱, 장근호, 조민호 (202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인식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33(3), 1-37. doi: 10.26847/mspa.2023.33.3.1
- 김수미, 김현옥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2016 년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 이용.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3), 324-340. doi:10.4040/jkan.22030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원영, 정나은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137-164. doi: 10.30974/kaice.2020.9.4.7
- 김은혜, 최려나 (202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인식, 우울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아동학회지**, 45(1), 39-52. doi:10.5723/kjcs.2024.45.1.39
- 김재남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10), 203-210. doi:10.9708/jksci.2022.27.10.203
- 김한솔, 김규찬 (2023).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63, 1-25. doi:10.20993/jSSW.63.1
-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박정서 (2012). 다문화시대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분석 연구. **중등교육연구**, 60(4), 1015-1044. doi:10.25152/ser.2012.60.4.1015
- 박지나 (2023).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6(1), 165-190. doi:10.14328/MES.2023.3.31.165
- 박희훈, 이유정 (2019).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정체성 인식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5(1), 725-743. doi:10.24159/joec.2019.25.1.725
-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 송채수 (2018). 이중언어사회화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아버지의 자녀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48, 245-280. doi:10.34252/acsri.2018.48..009
- 여성가족부 (2022).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유창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유형. **다문화사회연구**, 13(3), 73-107. doi:10.14431/jms.2020.10.13.3.73
- 윤미리, 장유나, 홍세희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25-48.
-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179-208. doi:10.14816/sky.2018.29.1.179
- 이수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예측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113-139. doi:10.14328/MES.2020.9.30.113
- 차한솔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및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민주, 이주연 (2023).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교육혁신연구**, 33(2), 163-187. doi:10.21024/pnuedi.33.2.202306.163
- 황희봉, 주은선 (2023). 부모지지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5(1), 79-102. doi:10.51155/KAMW.2023.5.1.79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doi:10.1016/j.ijintrel.2005.07.013

- Berry, J. W. (2011). Integration and multiculturalism: Ways towards social solidarity. *Papers on Social Representations*, 20(1), 2.1-2.21.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doi:10.1111/j.1464-0597.2006.00256.x
- Carrera, S. G., & Wei, M. (2014). Bicultural competence, acculturative family distancing, and future depression in Latino/a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427-436. doi:10.1037/cou0000023
- Efron, B., & Tibshirani, R. (1986). Bootstrap methods for standard errors, confidence intervals, and other measures of statistical accuracy. *Statistical Science*, 1(1), 54-75. doi:10.1214/ss/1177013815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doi:10.1097/00004583-199609000-00016
- Hovey, J. D., & Magaña, C. G. (2002). Psychosocial predictors of anxiety among immigrant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8(3), 274-289. doi:10.1037/1099-9809.8.3.274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 Kaplan, D.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undations and extensions* (2nd ed.). Los Angeles, CA: Sage.
- Karataş, S., Crocetti, E., Schwartz, S. J., & Rubini, M. (202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thnic and national identities in adolescents from migrant families: The role of social identification with family and classmat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37(6), 705-722. doi:10.1177/08902070221149602
- Kirby, K. N., & Gerlanc, D. (2013). BootES: An R package for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s on effect siz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5, 905-927. doi:10.3758/s13428-014-0508-5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ee, M. S., Han, S. J., & Thompson, C. M. (2021). Bicultural self-efficacy, bicultural identity integration, critical conscious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people of color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Psychology, 155*(8), 738-754. doi:10.1080/00223980.2021.1970503
- Marcia, J. E. (2002). Adolescence, identity, and the Bernardone family. *Ident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and Research, 2*(3), 199-209. doi:10.1207/S1532706XID0203_01
- Masgoret, A. M., & Ward, C. (2006). Culture learning approach to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pp. 58-7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sunaga, M., Hecht, M. L., Elek, E., & Ndiaye, K. (2010). Ethnic identity development and accultur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of Mexican-heritage youth in the South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3), 410-427. doi:10.1177/0022022109359
- Nguyen, A. M. D., & Benet-Martínez, V. (2013).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1), 122-159. doi:10.1177/0022022111435097
- Noh, S., & Avison, W. R. (1996). Asian immigrants and the stress process: A study of Korean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2), 192-206. doi:10.2307/2137273
-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156-176. doi:10.1177/074355489272003
- Phinney, J. S., Berry, J. W., Vedder, P., & Liebkind, K. (2022). The acculturation experience: Attitudes, identities and behaviors of immigrant youth. In J. W. Berry, J. S. Phinney, D. L. Sam, & P. Vedder (Eds.), *Immigrant youth in cultural transition: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cross national contexts* (pp. 71-116).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am, D. L., & Berry, J. W. (2010).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 472-481. doi:10.1177/1745691610373075
- Sue, D. W., & Sue, D. (1999).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Tian, L., McClain, S., Moore, M. M., & Lloyd, H. (2019). An examination of ethnic identity, self-compassion, and acculturative stress in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9(2), 635-660. doi:10.32674/jis.v9i2.617
- Widaman, K. F., Ferrer, E., & Conger, R. D. (2010). Factorial invariance within longitud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Measuring the same construct across time.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4(1), 10-18. doi:10.1111/j.1750-8606.2009.00110.x
- Yampolsky, M. A., & Amiot, C. E. (2016). Discrimination and multicultural identity configurations: The mediating role of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5, 86-96. doi:10.1016/j.ijintrel.2016.09.002

ABSTRACT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national identity of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Cho, Yunyoung*·Chung, Hyunhe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national identity of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362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First, the acculturation stress of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showed a decreasing trend over time, whil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and national identity exhibited an increasing trend over time. Furthermore, the initial levels were found to have a persistent influence on subsequent changes. Second, the lower the acculturation stress perceived by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in their fourth year of elementary school was, the higher their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was, and the faster the change in national identity increases. The higher th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in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was, the higher their national identity was. In addition, as acculturation stress decreased over tim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increased slowly, and a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increased, national identity increased rapidly. Third, the attitude of bicultural acceptance played a complet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national identity. These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a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according to the level of acculturation stres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national identity in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and also suggests a need for multicultural counseling strategies to cultivat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Key Words: multicultural early adolescents, acculturation stress,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national identity, latent growth model

*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